

## 고전중국어의 ‘以’ 전치사구 語順과 정보구조

梁世旭\*

<目次>

I. 머리말	1. ‘以’의 文法化和 ‘以’ 전치사구의 통사적 특성
II. 語順과 정보구조	2. ‘以’의 목적어 前置와 화제
1.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3. ‘以’ 전치사구의 語順
2. 語順과 정보구조	變異와 초점
III. ‘以’ 전치사구의 語順과 정보구조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전중국어의 반영하고 있는 문헌자료에서는 전치사 ‘以’와 관련된 두 가지 특이한 語順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아래 (1)과 같이 ‘以’의 지배를 받는 전치사 목적어가 ‘以’에 前置되는 語順이다. 고전중국어는 SVO 어순을 가진 언어이고 ‘以’는 동사에서 기원한 前置詞이므로 이러한 어순은 예외적이다. 둘째는 (2)와 같이 ‘以’ 전치사구가 동사구에 先行하는 語順과 後行하는 語順이 함께 출현하는 현상이다. (2.가)와 (2.나)의 명제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두 예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명 방법을 찾아야 한다.

(1) 禮以行義, 信以守禮, 刑以正邪. (左傳, 僖公28年)

\* 서울大學校 講師.

- (2) 가. 何可廢也? 以羊易之.(孟子, 梁惠王上)  
 나.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孟子, 梁惠王上)

본고에서는 ‘以’ 전치사구와 연관된 두 가지 어순을 정보구조를 구성하는 두 원리인 화제와 초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언어 고유의 목적인 정보 전달이 어떤 구체적인 언어 수단을 통해 달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이론 체계를 좀 더 정교화하고 핵심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정보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시도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武果의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1998), 張今·張克定的 《英漢語信息結構對比研究》(1998), 박철우의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2003) 등은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경향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그러나 고전중국어를 대상으로 정보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고전중국어’는 孔子(기원전 551~479)의 생존 시기인 春秋 말엽부터 戰國時代를 거쳐 기원전 221년 秦의 통일 무렵까지 대략 350년에 걸쳐 사용되었던 중국어를 지칭한다.<sup>1)</sup> 고전중국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시기의 언어가 이후의 文言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이후의 역대 중국 왕조들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게 될 儒敎의 여러 경전과 역사서·철학서가 이 시기에 완성되었고, 이들 저서에 사용된 언어는 후대 작가들의 규범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재생산되었다. 이 시기의 언어를 ‘고전중국어’

1) 이 고전중국어는 시기적으로 Pulleyblank(1995)의 ‘Classical Chinese’(B.C. 5세기~221년), 孫朝奮(1996)의 ‘古代漢語’(B.C. 500년~A.D. 200년), Peyraube(1998)의 ‘Late Archaic Chinese’(B.C. 5~2세기), 石毓智·李訥(2001)의 ‘古代漢語’(B.C. 700년~200년)와 대략 일치한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규범적 성격 때문이다.

## II. 語順과 정보구조

### 1.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정보의 전달은 언어의 본질적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의사소통 환경(넓은 의미에서의 문맥)이 달라짐에 따라 화자가 동일한 생각을 서로 다른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문법적 수단, 의미의 차이를 수반하지 않고 문장의 구조적 차이를 일으키는 문법적 수단이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화자는 어떤 문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특정한 문장 구조를 선택하며, 문장 구조는 발화 시점에서 청자의 지식과 의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화자의 가정과 문장 구조 사이의 관계, 또는 문맥과 문장 구조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문법 성분이 정보구조이다.

정보구조는 청자의 의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과 같은 심리적인 것에서 출발하기는 하지만, 이 가정이 통사론·형태론·운율론 등과 같은 문법 구조에 반영될 때에만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보구조는 의미적으로 동일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리고 화용적으로 다른 문장인 變異文(allosentence)을 그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다.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휘적, 명제적 의미가 아니라 의미가 전달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즉 '무엇이 전달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화용론의 연구 영역에 접근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구조의 연구 영역이 화용론과 동일하거나 화용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화용론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문장 형식이 왜 둘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 반면,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왜 둘 이

상의 문장 형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화제(topic)—논평(comment), 초점(focus)—바탕(ground)은 정보구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화제는 文頭에 위치하여 문장의 설명 또는 언급의 대상이 되는 요소이며, 논평은 화제에 대하여 설명 또는 언급을 하는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화제는 대하여성(aboutness)이라는 속성을 갖고 ‘...에 대하여 말해보자면’과 같은 해석을 받게 된다. 한국어, 현대중국어, 고전중국어의 화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굵은 글씨가 화제임).

(1) 가. 향기는 장미가 좋다. / 나. 장미는 향기가 좋다.

(2) 가. 早餐 她只吃一个饅頭.  
나. 那場火 幸亏消防隊來得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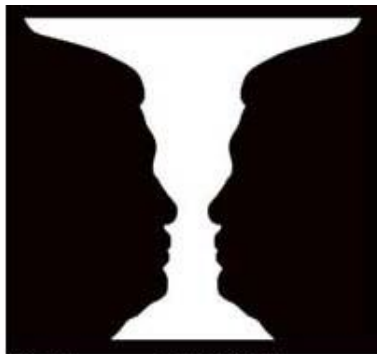
(3) 가. 公 爵爲執圭.(戰國策, 東周策)  
나. 伯夷 目不視惡色, 耳不聽惡音.(孟子, 萬章下)

초점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은 Halliday(1967)다. 그는 초점이란 레마의 일부분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어디에 메시지의 주된 요점이 놓이는가에 대한 화자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화자가 ‘제보적인’(informative) 것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정보 단위의 부분을 표시해 주는 일종의 강조라고 언급하였다. Chomsky(1971)와 Jackendoff(1972)는 초점을 前提와 相補的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전제를 ‘화자와 청자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화자에 의해 상정되는 문장 안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전제는 (4)와 같이 초점에 의해 채워질 變項 X를 가진 문장으로 보았다.

(4) 가. She gave x to Harry.  
나. She gave the Shirt to Harry.

초점은 이와 같이 '전제 또는 열린 명제가 가진 변항을 채우는 요소' 또는 '숨겨진 물음에 답하는 요소' 따위로 여겨지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정의 되어 왔지만 초점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해 일관된 성격을 부여하기가 쉽지는 않다.

초점-바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게슈탈트 심리학<sup>2)</sup>의 前景 (foreground)과 背景(background)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 대상으로 착시 현상이 있는데, 아래 '루빈의 컵'이 가장 널리 알려진 예이다.



Gleitman, 루빈의 컵

이 착시 현상은 前景과 背景의 변화와 관련된다. 前景은 앞에 떠오르는 형상이고 背景은 전경 이외의 형상이다. 개인은 전경과 배경을 조직화하여 知覺의 場을 마련하고 의식 속에 받아들인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前景-背景은 정보구조의 초점-바탕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개념이다. 앞의 그림들에서 전경이 배경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드러나듯, 초점은 바탕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의미가 있는 개념이 된다. 이들의 관계는 “전경 : 배경 =

2) 보통 '형태 심리학'이라고 번역하는 게슈탈트 심리학은 1912년 베르트하이머의 연구로 시작되었다. 게슈탈트(Gestalt)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지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형태를 말한다.

초점 : 바탕”의 이항대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아래 예문은 전경과 배경 즉 초점과 바탕이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장 구조가 선택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 (5) 가. The dot is inside the circle.  
나. The circle is around the dot.

Lambrecht(1994: 299)는 초점과 바탕을 일부러 뒤바꾸어 웃음을 유발 시켰던 딸과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다. 위 예문은 딸의 질문 (A)의 정보구조에서 가정된 전제와 자신(B)의 전제가 다름으로 인해 농담이 가능해진 것이다.

- (6) A : 아빠, 왜 새는 남쪽으로 날아가요?  
B : 글썄... 잘 모르겠는데.  
A : 걷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 2. 語順과 정보구조

정보구조는 강세 등의 운율적 요소, 화제표지 등의 형태적 요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특정 성분의 이동에 의한 어순의 변화 또는 특정한 문장 구조의 선택 등과 같은 통사적 수단을 통해 상이한 정보구조를 실현 하는 방법이 여러 언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령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어순의 변화는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의 변화를 수반한다. 가령 ‘John Killed Bill’과 ‘Bill Killed John’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어순이 주어와 목적어의 문법적 관계와 같은 통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7)과 같이 영어에서도 모든 어순이 엄격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7) 가. John saw the play yesterday.  
 나. Yesterday John saw the play.  
 다. The play John saw yesterday.

위 예문들에서 어순의 차이가 서로 다른 前提를 바탕으로 하는 相異한 정보구조의 부호화에서 비롯되었다. 가령 위 (7)의 문장들은 아래 (8)의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다.

- (8) 가. When did John see the play?  
 나. What did John see yesterday?  
 다. What happened to the play?

영어에서 'it-분절문' 또는 능동/피동문에 의한 어순의 변화도 상이한 정보구조를 부호화하는 전형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고전중국어는 語順類型學의 관점에서 SVO 언어라고 할 수 있다. SVO 언어라는 것은 다른 어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SVO 어순이 中立的(neutral)이고 無標的(unmarked)인 語順이라는 의미이다. 格 표지가 없는 고전중국어에서 기본 어순은 주로 각 명사구의 통사적 역할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능적 의미적 요인도 語順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문장의 한 성분이 文頭에서 화제 기능을 담당하는 話題化(topicalization)가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話題化는 특정 성분의 이동에 의한 어순 변화를 통해 相異한 정보구조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sup>3)</sup>

한 문장 안에서 각 성분이 차지하는 위치는 정보의 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프라그 학과의 연구에 의하면 문장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요소가 이른바 '通報의 힘'(communicative dynamism)이 가장 약하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통보의 힘이 증가하는 문장이 가장 안정적인 문장이 된다. 따라서 통보의 힘이 가장 약한 '옛 정보'가 문장의 맨 앞에서 화제 역할을

3) 고전중국어의 화제화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話題化 현상은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格 助詞가 발달한 언어나 러시아어와 같이 명사가 格 변화를 하는 이른바 ‘자유 어순 언어’(free word order language)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 Ⅲ. ‘以’ 전치사구의 語順과 정보구조

#### 1. ‘以’의 文法化和 ‘以’ 전치사구의 통사적 특징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동작, 상태 등을 기술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내용어(content words, 또는 ‘實詞’)가 어떠한 언어적 맥락 속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등의 문법어(grammatical words 또는 ‘虛詞’)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변화 과정을 문법화(grammaticalization)라고 부른다. 고전중국어에서 부사 ‘既’와 접속사 ‘卽’이 각각 ‘마치다’와 ‘나아가다’를 의미를 갖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이라든지, 현대 중국어에서 ‘被’ 구문을 구성하는 ‘被’와 ‘把’ 구문을 구성하는 ‘把’를 포함한 대부분의 介詞들이 동사에서 유래된 것 등을 이러한 예로 들 수 있다. 또 고전중국어의 대부분의 전치사는 동사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與’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爲’는 ‘...을 위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由·從’은 ‘따르다’라는 동사에서, ‘於’는 ‘...에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각각 문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전치사이다.<sup>4)</sup> 문법화는 類推와 함께 통사 구조의 역사적 변화 기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분석틀이 된다.

‘以’의 甲骨文 字形은 손으로 물건을 잡고 있는 형상으로, 甲骨文에서 ‘以’는 대부분 ‘잡다, 지나다, 바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로 사용되었다. 《殷墟甲骨文刻辭彙釋總集》를 대상으로 한 郭錫良(1998)의 통계에 의

4) 이들 전치사는 고전중국어에서 여전히 동사적 용법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면 ‘以’가 출현한 946회의 용례 가운데 현재 500회 안팎을 해독할 수 있는데, 90% 이상은 단독으로 술어로 사용되었고 10% 정도만 다른 동사와 함께 출현하며, 전치사로 사용된 용례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西周 시기의 金文에서 이미 ‘以’는 동사보다는 전치사로 자주 사용되며 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도 목적어가 구체적인 물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대상인 경우가 많다. 《商周青銅器銘文選》에 실려있는 511건의 西周 시기 青銅器에는 ‘以’가 64회 출현하는데 이 가운데 19회는 동사로, 3회는 접속사 등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치사로 사용되었다. 金文에서 ‘以’가 전치사로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1) 虢仲以王南征。(虢仲盨蓋)

(2) 余獻婦氏以壺。(五年罍生簋)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以’가 전치사로 사용되는 비율은 더욱 확대된다. 《論語》에 등장하는 ‘以’의 207회 용례 가운데 156회, 《孟子》에 등장하는 614회의 용례 가운데 약 460회가 전치사로 사용되었다.<sup>5)</sup> 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도 ‘잡다’ 또는 ‘지나다’의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사용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이상에서 제시된 郭錫良(1998)을 바탕으로 《殷墟甲骨刻辭摹釋總集》·《商周青銅器銘文選》(西周 金文)·《論語》·《孟子》에 출현하는 ‘以’ 용법의 통계 자료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5) 《論語》의 경우 ‘以’의 나머지 용법 가운데 동사는 11회, 접속사는 31회이다. 《孟子》의 경우에는 접속사 용법이 66회, ‘已’와 通用되어 쓰인 정도부사 용법이 4회, ‘可以’나 ‘足以’에서와 같이 형태소로 사용된 예가 62회이며, 동사 용법은 20회를 넘지 않는다. 한편 楊伯峻의 《論語譯註》(1980)에 실려있는 <論語詞典>의 통계에 따르면 《論語》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152회의 ‘以’ 가운데 동사는 10회, 전치사는 96회, 접속사는 41회, 기타 용법이 5회이다. 또 《孟子譯註》(1960)에 실려있는 <孟子詞典>의 통계에 따르면 《孟子》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397회의 ‘以’ 가운데 동사는 18회, 전치사는 281회, 접속사는 94회, ‘已’와 通用되어 쓰인 정도부사 용법이 4회이다.

文 獻	총계(회)	動詞(%)	前置詞(%)	其他(%)
《殷墟》	946	90	0	10
《商周》	64	30	65	5
《論語》	207	5	75	20
《孟子》	614	3	75	22

한편 춘추전국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以’가 접속사로 사용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西周 金文에서 3회(5%)에 불과하던 접속사 용법의 비율은 《論語》에서는 31회(15%)로, 《孟子》에서는 66회(11%)로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可以’, ‘足以’, ‘無以’, ‘以爲’, ‘何以’, ‘所以’ 등에서와 같이 ‘以’가 고정된 표현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는 빈도도 현저하게 증가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以’는 甲骨文에서 춘추전국시대까지의 문법화 과정을 거쳐 동사에서 기능어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사로 사용된 ‘以’의 의미는 “(구체적인 물체를) 잡다, 지니다 → (추상적인 대상을) 잡다, 지니다 → 사용하다”로 추상화되었으며, 기능어로 사용된 ‘以’는 “전치사 → 접속사 → 造語形態素”와 같은 일련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Hopper & Traugott 1993:7)가 언급했던 ‘문법성의 연속변이’(cline of grammaticality) 과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以’는 中古 시기에 점점 사용영역이 축소되다가 새로 출현한 다른 전치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몇몇 정형화된 표현에서만 사용되게 된다.

‘以’의 전치사로의 문법화는 기본적으로 西周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以’는 예문 (3-4)와 같이 춘추전국시대에도 여전히 단독으로 술어를 구성하는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용어에서 문법어로의 문법화 과정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진적인 轉移인 것이다.

(3) 我辭禮矣, 彼則以之.(左傳, 襄公10年)

(4)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論語, 八佾)

전치사 '以'의 의미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행위의 도구나 수단을 지칭하는 하는 데 사용된 '以'는 '쓰다'라는 동사로서의 의미를 단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以'가 유도하는 전치사구는 예문 (5)처럼 본동사의 앞에 놓일 수도 있고 (6)처럼 본동사의 뒤에 놓일 수도 있다.<sup>6)</sup>

(5) 醒, 以戈逐子犯.(左傳, 僖公 23年)

(6) 殺人以梃.(孟子, 梁惠王上)

'以'는 또 행위의 이유, 행위의 시간, 판단의 근거 등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7) 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孟子, 梁惠王上)

(8) 斧斤以時入山林...(孟子, 梁惠王上)

(9) 以位, 則子君也, 我臣也.(孟子, 萬章下)

전치사 '以'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뒤에 목적어 대명사 '之'가 오는 예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신 '以' 자체가 대명사를 포함한 '그것으로, 그렇게 해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 代用語로 사용된다.

(10)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孟子, 梁惠王上)

6) 전치사 '以'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분석은 Pulleyblank(1995)[졸역(2005)]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1) 可使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孟子, 梁惠王上)

대용어 ‘以’는 ‘以來’, ‘以下’ 같은 시간구와 공간구에서 출발점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12) 否, 自生民以來, 未有孔子也。(孟子, 公孫丑上)

(13) 卿以下必有圭田。(孟子, 滕文公上)

‘以’는 ‘可, 足’ 등의 술어 형용사, ‘有, 無’ 등의 존재 동사, ‘所, 是, 何’ 등의 대명사와 결합하여 ‘可以, 足以, 有以, 無以, 所以, 是以, 何以’ 등의 관용 표현을 만들 수 있다.

(14) 五十者可以衣帛矣。(孟子, 梁惠王上)

(15) 吾力足以舉百鈞而不足以舉一羽。(孟子, 梁惠王上)

(16) 亦將有以利吾國乎?(孟子, 梁惠王上)

또 ‘以’는 ‘爲’와 함께 사용되어 예문 (17)처럼 ‘以X爲Y’(X를 Y라고 여기다)라는 관용 표현을 형성하기도 한다. ‘以’ 뒤의 목적어 대명사가 생략되면 예문 (18)처럼 ‘以’와 ‘爲’가 결합하여 합성어 ‘以爲’를 만든다. 그러나 고전중국어에서 ‘以爲’의 ‘以’와 ‘爲’는 여전히 각각 해석해야 한다.

(17) 百姓皆以王爲愛也。(孟子, 梁惠王上)

(18) 民猶以爲小也。(孟子, 梁惠王下)

전치사 ‘以’의 중요한 문법 기능 가운데 하나는 ‘주다, 가르치다, 말하다’ 등과 같이 이중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뒤에서 직접목적어를 유도하는 것이

다. 고전중국어에서 이중목적어는 예문 (19)처럼 ‘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 순서로 동사 뒤에 직접 배열될 수도 있고, 예문 (20)처럼 직접목적어를 ‘以’가 이끄는 전치사구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때 ‘以’ 전치사구는 (20.가)처럼 동사 앞에 놓일 수도 있고 (20.나)처럼 동사 뒤에 놓일 수도 있다.

- (19) 가. 授孟子室.(孟子, 公孫丑下)  
 나. 后稷教人稼穡.(孟子, 滕文公上)
- (20) 가. 堯以天下與舜.(孟子, 萬章上)  
 나. 教人以善.(孟子, 滕文公上)

‘以’의 지배를 받는 직접목적어는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以’의 목적어들과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하다.

- (21) 以告孟子.(孟子, 離婁上)

## 2. ‘以’의 목적어 前置와 화제

Greenberg(1966)는 세계의 언어들에 존재하는 語順의 普遍性을 설명하기 위해 30여 가지의 언어를 표본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본 어순을 유형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주어(S), 동사(V), 목적어(O) 어순을 기준으로 언어들을 SVO, VSO, SOV의 세 가지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VO와 OV 어순으로 양분하는 言語類型論을 제안하여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볼 때, OV 언어에서는 後置詞가 발달하고 VO 언어에서는 前置詞가 발달한다.

고전중국어는 語順 類型論의 관점에서 볼 때 SVO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고전중국어가 SVO 언어라는 것은 다른 어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SVO 어순이 중립적(neutral)이고 무표적(unmarked)인 語順

이라는 의미이다.<sup>7)</sup> 고전중국어의 대표적인 전치사 ‘以, 於, 與, 爲’는 본래 動詞였던 어휘가 文法化 과정을 통해 前置詞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動詞적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前置詞의 목적어가 前置詞 뒤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以’의 목적어는 다음 예문들에서와 같이 ‘以’ 앞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 ‘以’가 마치 後置詞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까지 한다.

- (22) 가. 禮以行義, 信以守禮, 刑以正邪.(左傳, 僖公28年)  
 나. 朝以聽政, 晝以訪問, 夕以脩令, 夜以安身.(左傳, 昭公1年)
- (23) 가. 旃以招大夫, 弓以招士, 皮冠以招虞人.(左傳, 昭公20年)  
 나. 吾道, 一以貫之.(論語, 里仁)

王力(1958), 郭錫良(1998), 張家文(2001) 등에서 이상과 같은 ‘以’ 목적어의 前置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前置의 動因과 機制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 현상을 話題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구조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以’의 목적어가 대명사 ‘何, 所, 是’일 때는 규칙적으로 ‘何以’, ‘所以’, ‘是以’(원인)의 어순을 보인다.<sup>8)</sup> ‘何’와 ‘所’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도 언제나 前置되고, ‘是’도 동사에 前置되는 예가 많으므로 이러한 목적어 전치 현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위 예문들처럼 ‘以’의 지배를 받는 일반명사 목적어가 ‘以’에 선행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치된 목적어의 위치가 문장 또는 구의 맨 앞쪽이라는 것이다. 이 文頭 또는 句頭는 일반적으로 話題가 놓이는

7) 고전중국어에서 목적어가 의문사이거나, 목적어가 부정문에 쓰인 대명사이거나, 목적어가 대용어에 의해 再指示되는 경우에는 OV의 어순을 보인다.  
 8) 문장의 접속사 기능을 하는 ‘是以’(이 때문에, 따라서)는 서술구의 일부로 쓰이는 ‘以是’(이것으로, 이를 통해)와는 다르다. 가령, “以是知其天也”(莊子, 養生主)는 “이것으로 [그것을 행한 것은] 하늘이라는 것을 안다”의 의미이다.

위치이다. 고전중국어에서는 문장의 한 성분을 文頭로 이동시키고 이동된 성분을 대용어가 再指示하는 話題化(topicalization)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話題化는 특정 성분의 이동에 의한 어순 변화를 통해 相異한 정보구조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 때 문두로 이동된 성분과 대용어는 共指示(coreference: ‘i’로 표시함) 관계에 놓이게 된다.

- (24) 가. 王之不王, 是折枝之類也.(孟子, 梁惠王上)  
 나. 富與貴, 是人之所欲也.(論語, 里仁)
- (25) 가. 聖人, 吾不得而見之矣.(論語, 述而)  
 나. 青, 取之於藍而青於藍.(荀子, 勸學)
- (26) 가. 萬乘之國, 弑其君者, 必千乘之家.(孟子, 梁惠王上)  
 나.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孟子, 梁惠王上)

예문 (24)는 주어가 화제화된 예이다. 주어가 화제화될 경우 그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주어의 정상적인 위치가 문두이기 때문이다. 대신 대용어 ‘是’가 주어를 재지시하고 주어와 ‘是’는 공지시 관계에 놓인다. 예문 (25)처럼 화제화된 성분이 목적어일 때 이를 재지시하는 대용어는 ‘之’이고, 예문 (26)처럼 화제화된 성분이 수식어일 때 이를 재지시하는 대용어는 ‘其’이다.

한편 화제화된 목적어 성분을 재지시하는 대용어 ‘之’는 종종 空範疇(empty categories: *e*)로 실현된다. 예문 (27)처럼 전치사 ‘與’, ‘使’의 뒤에 위치하여 전치사 목적어 기능을 할 때도 대용어가 생략되지만, ‘之’로 추정되는 대용어가 생략되는 가장 전형적인 환경은 예문 (28)처럼 ‘之’가 전치사 ‘以’의 지배를 받을 때이다.

- (27) 가. 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sub>e</sub>議也.(論語, 里仁)

나. 民; 可使 $e$ 由之, 不可使 $e$ 知之.(論語, 泰伯)

(28) 가. 夫禮 所以 $e$ 整民也.(左傳, 莊公23年)

나. 唯器與名, 不可以 $e$ 假人.(左傳, 成公2年)

다. 夫顛與; 昔者先王以 $e$ 爲東蒙主.(論語, 季氏)

라. 舊令尹之政; 必以 $e$ 告新令尹.(論語, 公治長)

고전중국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와 같은 화제화는 앞서 제시한 ‘以’ 목적어 전치 구문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보여준다. 우선 전치된 성분이 文頭 또는 句頭の 위치에 있으며, 전치된 성분은 원래 위치의 대용어(‘以’의 경우에는 공범주  $e$ )와 공지시 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앞 (22-23)의 예문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화가 가능하다.

(29) 가. 禮; 以 $e$ 行義, 信; 以 $e$ 守禮, 刑; 以 $e$ 正邪.(左傳, 僖公28年)

나. 朝; 以 $e$ 聽政, 晝; 以 $e$ 訪問, 夕; 以 $e$ 脩令, 夜; 以 $e$ 安身.(左傳, 昭公1年)

다. 旃; 以 $e$ 招大夫, 弓; 以 $e$ 招士, 皮冠; 以 $e$ 招虞人.(左傳, 昭公20年)

라. 吾道, 一; 以 $e$ 貫之.(論語, 里仁)

이 예들에서 (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치된 목적어는 다른 전치된 목적어들과 對照 관계에 있다. ‘以’의 지배를 받는 전치된 목적어가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은 다른 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는 목적어 전치의 動因이 對照를 통해 화제를 부각시키는데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화제가 되는 성분은 담화 쌍방이 알고 있는 옛 정보(old information)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문장에 새로 도입된 성분이나 문장의 다른 요소와 현저한 대비 관계를 이루는 성분도 화제가 될 수 있다. Gundel(1988: 217)은 이런 화제를 ‘對照的 話題’(contrastive topic)라고 명명하였다. 고전중국어에는 이러한 對照的 話題의 출현이 빈번하다.

(30) 가. 萬乘之國 弑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殺其君者, 必百乘之家.

(孟子, 梁惠王上)

나. 靑 取之於藍而靑於藍. 冰 水爲之而寒於水.(荀子, 勸學)

이러한 대조적 화제는 두 성분을 함께 話題化하여 대조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하려는 담화 전략의 일부이다.

### 3. ‘以’ 전치사구의 語順 變異와 초점

고전중국어에서 ‘以’가 유도하는 전치사구(Pp)는 동사구(Vp)의 앞에 놓일 수도 있고 뒤에 놓일 수도 있다. ‘以’는 동사에서 起源하였고 ‘以’ 전치사구와 동사구는 기본적으로 連動 구조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語順 變異는 예측가능한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제시한 “以戈逐子犯”(左傳, 僖公23年)은 ‘도끼창을 사용하다 + 누군가를 추적하다’ → ‘도끼창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추적하다’로, “殺人以梃”(孟子, 梁惠王上)은 ‘다른 사람을 죽이다 + 몽둥이를 사용하다’ →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몽둥이를 사용하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以’ 전치사구의 어순 변이는 일찍부터 많은 학자들을 관심을 끌었고 현재까지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제시된 분석들을 검토하고 정보구조와 초점이라는 관점에서 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sup>9)</sup> (31)은 ‘Pp + Vp’ 구조이며 (32)는 ‘Vp + Pp’이다.

(31) 가. 湯使人以幣聘之.(孟子, 萬章上)

나. 斧斤以時入山林.(孟子, 梁惠王上)

(32) 가. 招虞人以旌.(孟子, 滕文公上)

나. 教以人倫.(孟子, 滕文公上)

9) 본고에 인용한 《孟子》의 예문은 주로 魯國堯(1980)를 참고하였다.

특히, 《孟子·梁惠王上》七章에는 다음과 같은 세 예문이 차례로 등장한다.

- (33) 가. 何可廢也? 以羊易之.(孟子, 梁惠王上)  
 나. 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也.(孟子, 梁惠王上)  
 다.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孟子, 梁惠王上)

‘Pp + Vp’와 ‘Vp + Pp’의 語順 變異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馬建忠(1898)이었다. 그는 《馬氏文通》에서 ‘以’ 전치사구는 일반적으로 동사구를 선행하고, ‘以’ 전치사구가 동사구에 후행하는 것은 전치사구의 길이가 길기 때문이거나 동사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sup>10)</sup> 楊樹達(1955)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전치사구의 길고 짧음만을 근거로 규칙을 세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논평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馬建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위에서 예로든 (31-32)를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Pp + Vp’와 ‘Vp + Pp’의 어순 변이에서 ‘Vp’의 목적어가 대명사인지 여부 또는 ‘Pp’의 長短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

劉景農(1958)은 이른바 ‘側重論’을 주장하였다. 전치사구가 동사구에 선행할 경우 문장의 重點은 동사에 놓이고, 전치사구가 동사구에 후행할 경우에 문장의 重點은 전치사 목적어에 놓인다는 것이다.<sup>11)</sup>

- (34) 가. 湯使人以幣聘之.(孟子, 萬章上)  
 나. 招虞人以旌.(孟子, 滕文公上)

劉景農에 따르면 (가)에서 문장의 중점이 놓이는 곳은 동사 ‘聘’이며, (나)에서 문장의 중점이 놓이는 곳은 전치사 목적어 ‘旌’이다. 그러나 魯國

10) ‘以 전치사구’는 馬建忠의 용어로는 ‘以字司詞’이다.

11) Pulleyblank(1995: 48)도 문장에 끝에 오는 전치사구나 동사구에 초점이 놓인다고 보았으므로, 기본적으로는 劉景農(1958)의 주장과 일치한다.

堯(1980)은 이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동사가 단독으로 출현하거나 목적어를 수반할 경우 문장의 중점은 당연히 동사에 놓이게 되지만, ‘以’ 전치사구가 선행될 경우 초점은 전치사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孟子·滕文公上》에 등장하는 孟子和 陳相의 대화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하고 있다.

- (35) 가. 孟子: 許子必種粟而後食乎? / 陳相: 然.  
 나. 孟子: 許子必織布而後衣乎? / 陳相: 否, 許子衣褐.  
 다. 孟子: 許子冠乎? / 陳相: 冠素.  
 라. 孟子: 自織之與? / 陳相: 否, 以粟易之.  
 마. 孟子: 許子以釜甿爨, 以鐵耕乎? / 陳相: 然.  
 바. 孟子: 自爲之與? / 陳相: 否, 以粟易之.

魯國堯에 따르면 위 예문들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이 각각 해당 문장의 중점이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마)이다. 이 예문의 중점은 문맥을 고려할 때, 동사 ‘爨’과 ‘耕’이 아니라 명백히 ‘以’의 목적어 ‘釜甿’과 ‘鐵’이라는 것이다. 魯國堯의 ‘Pp + Vp’와 ‘Vp + Pp’의 語順 變異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전치사구와 동사구의 위치는 어떤 경우에는 相互 轉換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 (2) 전치사구와 동사구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先後 문장 관계의 調和이다. (3) 전치사구와 동사구가 동시에 출현할 경우, 전치사구의 상대적 위치와 무관하게 전치사구에 중점이 놓인다.

魯國堯가 《孟子》의 언어 자료를 근거로 ‘Pp + Vp’와 ‘Vp + Pp’의 語順 變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임의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Pp + Vp’ 구조와 ‘Vp + Pp’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원인을 표시할 경우에는 ‘Pp + Vp’ 구조만 가능하다.

- (36) 柳下惠不以三公易其介.(孟子, 盡心上)

둘째, ‘Pp + Vp’ 구조에서 ‘Vp’의 구조는 비교적 복잡한 반면, ‘Vp + Pp’ 구조에서 ‘Vp’의 구조는 단순하다.

- (37) 가. 文王以民力爲臺爲沼.(孟子, 梁惠王上)  
 나. 以其乘輿濟人於溱洧.(孟子, 離婁下)

- (38) 가. 殺人以梃與刃, 有以異乎?  
 나. 養弟子以萬鍾.(孟子, 公孫丑下)

셋째, ‘Pp + Vp’ 구조는 ‘不’이나 ‘無’로 부정하거나 ‘能’과 같은 조동사를 추가할 수 있지만, ‘Vp + Pp’ 구조는 ‘不’이나 ‘無’로 부정하거나 조동사를 추가할 수 없다.

- (39) 가.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孟子, 萬章下)  
 나. 請無以辭却之, 以心却之.(孟子, 萬章下)

- (40) 가. 惟仁者爲能以大事小.(孟子, 梁惠王下)  
 나. 天子不能以天下與人.(孟子, 萬章下)

‘Vp + Pp’ 구조에서도 ‘Vp’와 ‘以’ 전치사구에 부정사가 추가될 수 있지만, 이 때 ‘以’는 동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 (41) 가. 域民不以封疆之界, 固國不以山谿之險, 威天下不以兵革之利.(孟子, 公孫丑下)  
 나. 使人不以道, 不能行於妻子.(孟子, 盡心下)

넷째, ‘Vp + Pp’ 구조에서 ‘Vp’의 목적어는 ‘Pp’의 목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之’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sup>12)</sup> ‘Pp

12) ‘Vp + Pp’ 구조에서에서 ‘Vp’의 목적어가 ‘Pp’의 목적어에 비해 긴 유일한 예외는 다음의 경우이다: “五畝之宅, 樹牆下以桑.”(孟子, 盡心上)

+ Vp' 구조는 'Vp'의 목적어의 길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

- (42) 가. 附之以韓魏之家.(孟子, 盡心上)  
 나. 有人於此, 其對我以橫逆.(孟子, 離婁下)
- (43) 가. 以粟易之.(孟子, 滕文公上)  
 나. 以一杯水救一車薪之火.(孟子, 告子上)

이상의 분석을 통해 'Pp + Vp'와 'Vp + Pp'의 語順 變異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임의로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魯國堯(1980)에서 전치사구와 동사구의 위치가 어떤 경우에 상호 전환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 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전치사구와 동사구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先後 문장 관계의 調和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본 점, 전치사구와 동사구가 동시에 출현할 경우에는 전치사구의 위치와 무관하게 전치사구에 중점이 놓인다는 주장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Pp + Vp'와 'Vp + Pp'의 語順 變異를 무표적 어순과 유표적 어순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무표적 어순에서는 강세(stress)에 의해 초점이 明示的으로 표시되고 유표적 어순에서는 文末 성분에 문장 초점이 놓인다고 주장한다.

고전중국어에서 전치사구와 동사구의 무표적 어순은 'Pp + Vp'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위에서 魯國堯(1980)의 논의를 근거로 살펴본 바와 같이, 'Vp + Pp' 어순의 출현은 원인의 표시, Vp의 복잡성, 부정사와 조동사의 추가, 목적어의 길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과는 달리 'Pp + Vp' 구조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둘째, 출현 빈도에 있어서도 'Pp + Vp' 구조는 'Vp + Pp' 구조보다 월등히 높다.<sup>13)</sup> 셋째, 'Pp

13) 張楨(2002)의 통계에 의하면, 《論語》·《孟子》·《韓非子》에서 'Pp + Vp' 구조와 'Vp + Pp' 구조의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論語》: 16 대 22, 《孟子》: 88 대 44, 《韓非子》: 385 대 205.(《漢語介詞詞組語序的歷史

+ Vp' 구조는 고전중국어에서 수식어가 피수식어에 앞서는 일반적인 어순과도 일치하다. 아울러 중국어 역사통사론에서 'Pp + Vp'와 'Vp + Pp'의 어순 변이가 선진 중국어에서 자유롭다가 A.D. 1세기에서 15세기 무렵에 걸친 과도기를 거쳐, 'Pp + Vp' 어순으로 고정되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Pp + Vp'의 무표적 어순에서는 현재 여러 언어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文末의 Vp에 초점이 놓이고, Pp에 초점이 놓일 경우 강세에 의해 초점을 부각시켰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아래 예문에서 [ ]는 강세가 놓이는 성분을 나타낸다).<sup>14)</sup>

- (44) 가. 王好戰, 請以戰[喻].(孟子, 梁惠王上)  
 나. 周公使管叔監殷, 管叔以殷[畔].(孟子, 公孫丑下)  
 다. 天下有道, 以道[殉身].(孟子, 盡心上)

예문 (44)에서 '戰', '殷', '道'는 문맥에서 주어지 있는 前提된 성분이므로 초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喻', '畔', '殉身'이 각각 초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魯國堯가 제시한 예문 (35.마)의 경우에는 문맥상 전치사구의 목적어 '釜甗'와 '鐵'에 초점이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예문은 아래 (45)와 같이 전치사구에 문장 강세를 두어 초점을 明示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본 논문의 주장에도 부합하게 된다.

- (45) 孟子: 許子以[釜甗]爨, 以[鐵]耕乎?

'Vp + Pp'의 유표적 어순에서는 물론 'Pp'에 초점이 놓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Vp + Pp' 구조는 'Pp'가 부각되는 정보구조를

演變》,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4) 고전중국어의 강세를 표시한 어떤 문헌자료도 아직 발견된 바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입증하기는 물론 어렵다.

실현하기 위한 화자의 담화 전략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 (46) 가. 入其疆, 土地辟, 田野治, 養老尊賢, 俊傑在位, 則有慶, 慶[以地<sub>F</sub>].  
 (孟子, 告子下)  
 나. 嫂溺, 則援之[以手<sub>F</sub>]乎?(孟子, 離婁下)  
 다. 昔者大王居邠, 狄人侵之. 事之[以皮幣<sub>F</sub>], 不得免焉.(孟子, 梁惠王上)

(46.가-다)에서 ‘慶’, ‘援之’, ‘事之’는 선행 문장을 통해 복원가능한 정보, 즉 前提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초점이 놓일 수 없고, 뒤 성분인 ‘地’, ‘手’, ‘皮幣’에 문장의 초점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SVO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 文末에 가까울수록 CD(통보적 힘)가 증가하고, 文末 요소가 초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프라그 학파의 가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앞 예문 (33)에서 제시한 《孟子·梁惠王上》에 연속적으로 출현하는 세 예문의 정보구조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7) 가. 何可廢也? 以羊[易之<sub>F</sub>].  
 나. 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 故以羊[易之<sub>F</sub>]也.  
 다.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sub>F</sub>]也.

(47.가-나)에서 ‘易之’에 초점이 놓이는 이유는 희생으로 쓰일 동물을 ‘바꾸는 것’이 이 문맥에서 通報의 힘이 가장 강한 제보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sup>15)</sup> 그러나 (47.다)에서는 맹자가 이미 양과 소의 大小를 문제 삼았고, 왕이 이를 解明하는 문맥이므로 ‘以羊’이 초점이 된다.

15) ‘以羊易之’에서 ‘以羊’ 역시 새로운 정보이므로, ‘以羊易之’ 전체를 초점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고전중국어의 ‘以’ 전치사구와 연관된 두 가지 어순을 정보구조를 구성하는 두 원리인 화제와 초점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以’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의 前置는 話題化의 일부로, 목적어 성분의 前置에 의한 對照의 話題의 부각을 통해 相異한 정보구조를 실현하는 한 방법이다. ‘以’ 전치사구와 동사구가 관련된 語順 變異 역시 서로 다른 초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고유한 정보구조가 실현된다.

Li·Thompson(1976)은 [± 화제 중심]과 [± 주어 중심]의 두 가지 기준으로 세계의 언어를 네 유형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言語類型論을 제시하여 언어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유형론에 의하면 중국어는 전형적인 화제 중심의 언어이다. 화제 중심의 언어라는 含意를 좀 더 확장시키면 중국어를 ‘정보 중심의 언어’로 부를 수도 있다. 統辭(syntax)를 중심으로 문법이 구축되는 영어를 비롯한 印歐語와는 달리, 중국어는 정보구조의 요구가 통사의 요구에 우선하는 언어라는 의미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以’ 전치사구와 연관된 두 가지 어순은 정보가 통사에 우선하는 중국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는 ‘以’ 전치사구와 관련된 어순에만 주제를 한정하였으므로, 어순 변화를 통한 상이한 정보구조의 실현이라는 본고의 가설이 다른 전치사구에게까지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좀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 〈參考文獻〉

- 박철우,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2003.  
 줄 고, <고전중국어의 화제화와 대응어>, 《中國文學》 37, 2003.  
 이창호, 《현대한어 주제에 관한 담화 화용론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郭錫良, <介詞'以'的起源和發展>, 《古漢語研究》 2, 1998.
- 魯國堯, <孟子'以羊易之'·'易之以羊'兩種結構類型的對比研究>, 《先秦漢語研究》, 1980.
- 徐烈炯·劉丹青, 《話題的結構與功能》,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1998.
- 徐烈炯·劉丹青, 《話題與焦點新論》,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2003.
- 石毓智·李訥, 《漢語語法化的歷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 申小龍, 《左傳》主題句研究, 《中國語文》 2, 1986.
- 劉景農, 《漢語文言語法》, 北京: 中華書局, 1958.
- 李開, 《呂氏春秋》主題句研究, 《南京大學學報》 3, 1987.
- 張家文, <古漢語介詞'以'支配成分的移位和省略>, 《古漢語研究》 4, 2001.
- Chafe, Wallace L.,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Li(1976).
- Halliday, Michael A. K.,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3. 1967.
- Hopper, Paul J. & Traugott, Elizabeth Closs,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Lambrecht, Knud,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New York a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Li, C. N.(eds),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 Li·Thompson, Subject and Topic—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Li(1976).
- Pulleyblank, E. G.(1995), *Outline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Vancouver: UBC Press[줄역, 《고전중국어문법강의》, 서울:궁리, 2005].
- Vallduví, Enric, *The Informational Compon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Dissertation, 1990.

Wu, Guo, *Information Structure in Chinese*,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pply information structure theory to Classical Chinese and clarify the relation of *yi*以-preposition phrase word-order and information structure. Information structure is the grammatical components that govern the relation between speakers' assumption and sentence structures or the relation between contexts and sentence structures. Two main principles applied to the analysis of *yi*以-preposition word-order are topic and focus. The reversing of word order between *yi*以-preposition and object governed by that preposition is the part of topicalization and a method that realize different information structure through the prominence of contrastive topics. The word order variation related to *yi*以-prepositions phrase and verb phrases has the effect that different foci come into prominence through that word order variation. In Classical Chinese, the two word orders related to *yi*以-preposition phrase are proper discourse-pragmatic process that realize information structure.

**Keywords** : information structure, preposition phrase, word order, topic, focus, grammaticalization